



9 허위조작정보 분별하기!

그 소식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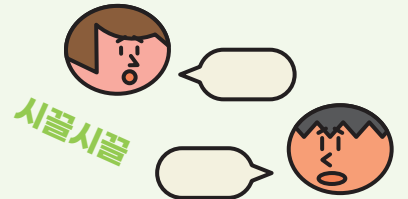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00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 카카오톡 채팅방에 허위 사실 유포한 B씨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감염환자를 추격하는 상황을 연출’

- 지하철역 안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한 C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 소식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었던 허위조작정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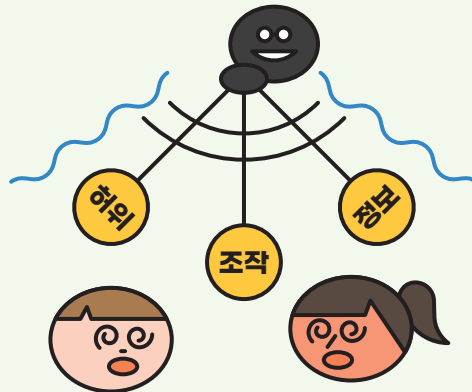
이 정보의 전달과정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온라인 공간에서는 누구나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도 하지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특정 대상을
속이거나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을 의미해요.



[출처] Journalism, “Fake news” &
Disinformation. 유네스코. 2018.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플랫폼 **미리네**
miline.or.kr

허위조작정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허위조작정보는 아무 목적 없이 전파되지 않아요.

클릭 수를 높여 돈벌이를 하려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선전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무엇을 쉽게 믿는지,
성향은 어떤지 파악하여 특정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허위조작정보는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어요.

만약 위기나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정보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달려 있는 경우,
허위조작정보에 속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해요.

‘허위조작정보’ 영상으로 더 알아보기



(출처) 호모 미디어쿠스:
우리가 오늘도 허위 정보에
속는 이유 (KBS, 2021)

허위조작정보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1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보자.

정보의 출처가 믿을만한 곳인지
확인 필요해요. 해당 정보를 제공한
웹사이트가 유명 언론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2 작성자를 확인해보자.

정보 작성자가 가공의 인물이거나 타인을 사칭할 수 있어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정보 작성자가
신뢰할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람이 과거에
작성한 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 뉴스의 헤드라인만 읽기보다 전체를 확인해 읽어보자.

본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른 기사제목인지 확인해 보아요.

4 정보의 날짜를 확인해보자.

오래된 뉴스나 사진, 영상을 다시 사용하여 작성하지는 않았나요?
과거에 다른 곳에서 벌어진 일을 현재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조작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동영상, 사진에서 발생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알 수 없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5 정보가 나의 불안이나 분노를 유발하는지 확인해보자.

정보에 의해 과도한 불안, 공포, 분노가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고 이 정보가 나에게서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해 봅시다. 허위정보들은 공격대상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런 감정을 부추긴답니다.

6 나 혼자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관련 정보를 탐색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출처) IFLA(국제도서관연맹). How to Spot Fake News.
https://repository.ifla.org/bitstream/123456789/167/2/how_to_spot_fake_news.pdf
(출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http://factcheck.snu.ac.kr/>